5·18 참상 최초로 알린 故유영길 영상기자 '오월광주상'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 발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모습 '최초 보도'
5·18 진상규명 등 '역사적 자료' 가치 인정

1980년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 최초로 알린 언론인은 故유영길(사진) 전 미국 CBS 서울지국 소속 영상기자로 확인됐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2021년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비경쟁 부문 공로상 격인 '오월광주상'에 유 전 기자가 선정됐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한원상 전 한국영상기자협회장)는 이날 오후 2시 5·18기념재단에서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 전 기자는 1980년 5월19일 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을 처음으로 취재하고 보도해 TV뉴스를 통해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18을 최초로 세계에 알린 것으로 유명한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보다 한발 더 앞서 광주의 참상을 전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5월19일 당일 미국 CBS 이브닝뉴스를 통해 세계 최초로 방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보도상 심사위원회가 유 전 영상기자의 유족과 지인 인터뷰, 1980년 5월19일 광주 동구청 상황일지, 미국 CBS-TV 뉴스, 5·18 당시 외신 보도와 국내외 학술 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다.

심사위원회는 "5·18 진상규명 작업과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유 전 기자를 시작으로 5·18 당시 다양한 언론의 취재기록과 언론인들의 증언을 재조명하고 체계화해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경쟁 부문 최우수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은 '두려워마라(Don't be afaid)'를 제작한 벨라루스 출신 미카일 아르신스키가 수상했다.

벨라루스 독재 권력의 불법선거를 고발한 작품으로, 지난해 벨라루스 대선에서 공정한 투표를 위해 독재에 맞서 싸운 벨라루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뉴스 부문에서는 '미얀마군, 강제진압 수위 강화(Myanmar army steps up enforcement level)'를 취재한 미얀마 출신 노만과 콜린 영상기자가 선정됐다.

이들은 영상 보도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잔혹한 폭력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특집 부문에는 '필사적 여정(Desperate Journey)'을 취재한 이탈리아 출신 브루노 페데리코 영상기자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 시상식은 오는 10월27일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만 달러와 트로피가 수여된다.

한편,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당시 광주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름을 딴 것으로,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분투하는 영상기자들을 위해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최명진 기자

전직 도의원 108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본선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전직(제5-10대) 전남도의원 108명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와 국가의 발전을 염원해온 전직 전남도의원 108인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 전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왔다"며 "도지사 시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등을 목표로 많은 정책을 펼쳤고, 굵직한 미래 전략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 전남발전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전력을 다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5선 국회의원, 여당 대표 등 국회와 정부, 중앙과 지방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로 말하는 후보가 이 전 대표로 호남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갈등에 지쳐있는 분열된 우리사회를 치유하고 이념과 지역을 넘어 어느 한편에 고립되지 않고 누구보다 넓게 확장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세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며 배우고 성장했다"며 "3명 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철학이 단절되지 않고 계승할 후보가 이 전 대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본선에 오르면 불안한 후보보다는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이기는 후보인 이낙연을 선택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임후성 기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1일 오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와 주요 내빈들이 전시관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수묵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남도 제공〉

"명량대첩축제서 수군학교 체험하세요"

온라인 축제 참여·유적지 방문 땐 체험키트 제공

전남도는 1일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호남 민초들의 호국·희생정신을 배우는 '조선수군학교' 체험 캠프 참가 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초·중·고 자녀가 있는 50가족이다.

조선수군학교는 가족 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소중한 지역 문화 유산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명량대첩축제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과 전남도 후원으로 운영한다. 이순신 리더십 캠프 일환으로 진행하며 명량대첩축제 누리집(www.mld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명량대첩축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전하게 축제도 즐기고 전남도내 이순신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교육과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축제 기간에 명량대첩축제T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명량해전 AR체험, 출정식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축제 이후 거리두기 지침을 지킨 가족 단위로 울돌목과 도내 이순신 유적지 등의 답사 미션 수행 인증사진과 소감문을 제출하면 다양한 체험키트를 제공한다. /김재정 기자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정민곤 내정

신임 광주시도시공사 사장에 정민곤(사진·2급·지방이사관) 시의회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고흥 출신인 그는 1998년 광주시 서구 5급 공채로 임명된 뒤 시 시민안전실장·문화관광체육실장·교통건설국장·정책기획관·자치행정국장·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공직 생활 23년 간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온화한 인품과 탁월한 행정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5일 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 청문회는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행 기자

전남도, 유망 中企 '스타기업' 키운다

성장 가능성 큰 15개사…3년간 최대 4억 맞춤형 지원

전남도가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15개사를 올해 전남형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선정 기업은 그린에너지 5개사, 바이오헬스케어소재·첨단운송기기부품 각 4개사,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2개사 등이다.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고루 분포됐다.

분야 별로 ▲그린에너지(5개사)=㈜에스텍, ㈜한국항공조명, ㈜더블유피, ㈜파워엔지니어링, ㈜티이에프로 ▲바이오헬스케어 소재(4개사)=좋은영농조합법인, ㈜자람푸드, ㈜다나메디컬, ㈜월드코스텍 ▲첨단운송기기부품(4개사)=㈜용호기계기술, ㈜에스씨, ㈜태진엔지니어링, ㈜코멤텍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2개사)=㈜하나에너텍, ㈜칸플랜드 등이다.

선정 기업은 기업 당 3년 평균 매출액 121억원, 수출액 18억원, 상시 고용인원 35명에 달한다.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전담PM(Project Manager)을 매칭하고, 기업 성장전략 계획 수립, 연구개발(R&D) 기획 등 프로그램을 기업 별로 3년간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내년에 연간 2억원 이내로 R&D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년 간 '전남 스타기업'을 선정해 도내 46개 사를 지원한 결과, 평균 매출액 31%, 수출 22.7%, 고용 7%가 늘어나는 등 도내 기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 전남 스타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스타기업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구인광고
광주 소니 서비스 센터
캠코더, 카메라
수리기사 모집
○ 평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5시
○ 4대보험 적용
○ 급여 : 면접 후 결정
062) 522-2000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부실채권 못 받은 돈 회수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채권추심 전문법인 (주)제이엠신용정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린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CMYK